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11월 17일(금)

(음력 10월 5일)

Пятница

17 ноября 2023 г.

№ 44 (1206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6일은 전 러시아 삼보의 날이다. 국가예산기관인 «삼보 및 유도 스포츠 학교»학교에는 30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탄화수소 가공의 중심이 된다

사할린 지역 정부들이 새로운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사할린을 건설하기 위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클러스터의 핵심은 동부 해안에 조성되고 있는 항구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잠재적 투자자들과 연방 부처 및 사업연맹, 국내 및 국외 기업의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이 계획을 설명했다.

행사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국제 전시-포럼에서 '사할린주의 날'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11월 4일 모스크바의 전 러시아 박람회장에서 '러시아' 국제전시-포럼이 열린 가운데 국내 전 지역과 정부 부처, 대형 기업 및 협력업체들이 수백만의 러시아인들의 노동 덕분에 성취한 성공사례들을 이야기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은 국제적 경제가 견고하게 구축돼 있고, 앞으로 탄화수소 심층 가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얼마 전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고 있다. '가스프롬'과 함께 연료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석유화학제품 생산도 가능하며, 이는 바로 광물과 질소비료 생산과 전주기 식물 보호제, 사료 단백질 생산시설과 직결된다. 이러한 생산은 석유와 석탄, 액화가스, 병커 터미널을 가진 동부 해안에 탄화수소 항구와 연결이 된다. 운송시설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다.

따라서 발전을 위한 추가 자극을 사할린주의 경제성과와 섬의 중심 부분에서 얻어 추가적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중국 사업가 사할린에 교통 및 관광기획에 투자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가들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해외 협력자들은 항공기 서비스 현지화, 무인기, 사할린 관광에 따른 기획 시행에 투자금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의 '시안 순제 케찌'회사와 공동으로 사할린에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리제재의 여건에서도 항공기 정비 및 수리와 연관된 서비스업은 특별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에서 서비스 현지화는 중국 기업과의 새로운 협력 단계이다. 아브라라 항공사를 기점으로 대규모 장비 격납고가 배치되어 있는 극동의 단일 항공사가 설립됐다. 앞으로 사할린에서 항공기들과 러시아 대형 항공기들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기업가와 협력으로 제재의 압력 속에서도 우리 항공기를 위한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 왕빈 회장은 "사할린을 방문하여 우리의 미래에 상호협력의 길과 형식을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 지역의 지도자로서 친히 이 문제를 저버리지 않고, 수용하여 신속한 해결책을

준비해주어 고맙다. 우리로서도 항공기 분야의 기획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싼수 다시 한쿤 케찌' 기업과 공동으로 실현할 기획은 무인기 생산과 관련돼 있다. 해외 협력자는 몇 가지 무인기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사할린의 전문가들은 이들 무인기의 구조를 연구하고,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생산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기종은 해양자동화 장비 연구부 특수설계국에서 생산을 시작한다. 해양자동화장비 특수조립기에는 자체 완제품이 있고, 중국 무인기 모델은 그 생산의 척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산둥 춘테 고찌 류유 유산'회사는 국제적인 관광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다. 매해 중국의 관광객들은 전 세계로 1억5천만 명이상이 여행을 하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할린 지역 관광부는 중국의 관광객을 위한 1주간 사할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어 향후 관광 상품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앞으로 해외 관광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와 하얼빈을 연결하는 직항편으로 방문하게 된다. 모든 공동기획에 따라 올해는 공식적인 협력에 대한 계획을 정착시킬 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단신

2024년-2026년 주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사할린주민 초청

11월 21일(화) 14시 사할린 주정부 청사에서 공청회를 진행한다. 공청회는 'OTB-사할린' 방송과 사할린 주정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송출된다.

<2024년과 계획기간인 2025년- 2026년에 사할린주 예산 분야에 대해> 법안 기획에 대한 정보자료는 '사할린주 예산 공개' 포털 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주민을 위한 예산'이란 간단한 소책자 형태로 주민을 위해 간단하게 주요 재정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두마, 2024년 러시아에 연금 인상 법안 채택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가 2차와 최종 3차 회의에서 무직 연금자들에게 연금 지급 확대안을 채택했다. 확대안에 따라 내년엔 연금보험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1,572루블리가 오른 22,605 루블리며, 노령에 따른 연금은 1,631루블리가 오른 23,449 루블리이다.

"연금 수급자 지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자금이 연방예산 기획에 포함됐다.

2024년 연금 인상으로 추가예산 비용은 2340억 루블리에 달한다"고 바체슬라브 월로진 하원의원 의장이 강조했다. 국가두마 의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노령 연금보험이 7.5% 인상된 가운데 3,200만 명의 국민이 해당 연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사할린주, 감염병 역학 상황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할린과 쿠릴에 독감 환자가 1명, 급성호흡기 질환 환자가 2077명이라고 전하며, 지난 한 주간 사할린주에 계절성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증가 추세로 역학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평가했다.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할린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73명이고 그중 4명이 아동이다. 감염 수치는 지난주보다 더 증가하여 주민 10만 명당 15.1명이 감염됐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코로나19의 경증(80.8%)을 앓았고, 그중 5.5%의 환자들은 중증 증상을 보였다. 이번 모든 코로나19 증상은 바이러스 '오미크론' 하위종과 연관돼 있었다. 또한 지난주에는 비병원성 폐렴이 확산돼 환자가 99명까지 증가했고, 그중 45.7%가 아동이며, 이런 증상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서 나타났다고 전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한입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사할린한인 추모관은 무연고자를 위한 추모관이다

위패 명단에는 총 4916명의 이름 올라

이의가 없는 경우, 위패를 합법적으로 무연고자의 위패로 여겨

얼마 전에 우연히 현덕수 사할린한인회 회장이 운영하는 '로즈아그로'회사에서 드디어 사할린주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대한민국영사출장소 등에 사할린한인 추모관(무연고) 명패 명단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로즈아그로'측에서 추모관이 무연고자 추모관이란 걸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명단에는 사망한 사할린한인 1945년 이전 출생자 이름이 올라있는데 총 4916 위다.

'로즈아그로'유한책임회사 토지에 위치한 사할린한인 무연고추모관에 배치하기 위해 만든 사할린한인들의 위패는 사할린에서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추모관이 무연고자를 위한 곳이었는데 위패 중 가족관계가 분명한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중에 추모관이 모든 희생사할린한인들을 위한 곳이라고 했다. 그리고 추모관 측에서는 올 8월까지 위패의 총명단을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는 거의 5000명의 사할린한인 1세대의 이름이 적혀있는데 모두가 무연고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 명단의 출처는 어디인가?', '이들이 무연고란 증거가 있는가?', '이 명단은 정말 합법적으로 수집된 것인가?'란 의문이 스스스로 생긴다.

'로즈아그로' 유한책임회사 측에서 명단과 함께 보내온 통보서에는 위패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망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고 위패에 대한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의가 없는 경우 이 위패들을 합법적으로 무연고자의 위패로 여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명단에 조상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대다수의 사할린한인들의 반응이 궁금하다. 저와 같지 않을까? 필자는 이 명단에 할아버지와 고모의 이름을 비롯해 여러 친척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들은 분명 무연고가 아니다! 우리는 묘지도 찾아가고, 기일에 제사도 지낸다. 기분은 참 안 좋다. 그리고, 왜 우리 사할린한인들의 허락없이 가족과 조상들의 이름이 무연고 명단에 올라간 것인지!

전해진 '사할린한인추모관(무연고) 위패 명단은 한글로 작성되었고, 고인의 이름, 묘지 지역, 성별, 출생년월일, 사망일이 적혀 있다.

아마 이 명단은 살아계시는 분들에게만 아니라 사할린을 떠난 한인들도 볼 필요가 있다.

(배순신 기자)

2023년10월 사할린주 소비자물가 변동

2023년 10월 사할린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9월 대비 100.97%이고, 2022년 12월 대비 106.07%(2022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9월 대비 100.31%였고, 2021년 12월 대비 110.47%였다)로 집계됐다.

2023년 10월 한 달간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29%로 2022년 12월 대비 103.82%였다. 비식료품의 가격은 101.36%로 2022년 12월 대비 108.58%였다.

서비스 품목의 가격은 99.86%로 2022년 12월 대비 105.85%였다.

한 달 만에 과채류가 0.9% 오른 가운데 오렌지가 7.2%, 생오이 6.2%, 토마토가 5.6%, 냉동 열매 1.4%, 레몬 1.0%, 사과와 바나나가 0.6% 올랐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채소는 당근이 9.5%, 비트가 6.8%, 양배추가 3.2%, 감자가 2.9%, 양파가 1.5%, 마늘이 1.0% 하락했다.

도정된 쌀의 가격은 4.7% 올랐고, 완두콩과 강낭콩은 3.6%, '게르쿨레스' 귀리는 2.1%, 좁쌀은 1.6%, 메밀은 0.6% 올랐고, 반면 마카로니는 평균가보다 1.4% 하락했다.

기타 식품 품목들에서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통새우는 6.7%, 닭고기는 6.1%, 케첩은 4.0%, 마요네즈는 3.6%,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간은 3.4%, 돼지고기는 3.3%, 청어는 2.8%, 우유 및 유제품, 손질한 생선(연어류는 제외), 생고기 콜바사는 2.2%, 연어알은 1.9%, 홍차는 1.8%, 고기 통조림은 1.7%, 쇠고기와 소시지 및 햄은 1.6%, 달걀은 1.5%, 냉동 오징어, 기름에 절인 낱생선 통조림은 1.0% 올랐다.

10월 비식품 품목에서도 추동 제품의 가격이 상승했다.

비식품 품목의 필수품목 중에 신생아 포대기, 베이비 크림, 유아 기저귀, 화장지, 치약, 젓병, 칫솔 등이 0.5 - 2.9% 올랐고, 반면 세안 비누와 물휴지, 세탁세제는 1.2% - 1.5% 하락했다. 10월 한 달간 경유가 2.7% 오른 가운데 차량 휘발유가 0.9%, 휘발유AII-98은 1.0% 올랐고, AII-92는 0.9%, AII-95는 0.8% 올랐다.

또한 생활 서비스품목의 가격도 상승해 컬러사진 현상은 12.0%, 구두수선은 6.2%, 서류 사진 현상은 4.8%, 경량차 바퀴 조정, 여성 미용실 이용료가 1.6%, 남성 미용실은 0.9% 올랐다. 전문교육 수강료도 29.3% 올랐고, 공증 및 인증 사무소 이용료는 13.9%, 소비자 대출 이용 수수료 11.7%, 복사비 7.4%, 경량차 운전 강습비가 0.5% 올랐다.

해외 여행 분야 서비스는 평균 8.3% 하락한 가운데 이집트 여행비는 15.2%, 동남아시아 여행비 13.6%, 자카르타지역 여행은 10.3%, 터키 여행비 9.0% 저렴해졌고, 반면 아랍에미리트 여행비는 1.7% 상승했다. 러시아 흑해 연안과 크림반도에서 휴양비는 14.1% 저렴해졌다. 소비자물가지수 변동과 함께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에도 변동이 있었다. 기초식품세트에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33개 식품들로 구성돼 있다.

2023년 10월 사할린주에서 기초식품세트 가격이 한 달 사이 8,507.38 루블리까지 오른 가운데 2023년 9월 대비 0.2% 올랐고, 2022년 12월 대비 6.7% 올랐다(2022년 10월에 기초식품세트 가격은 7,988.53루블리로 한 달 만에 1.7% 하락했다(2021년 12월 대비 8.9% 상승했다). 2023년10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8,417.28루블리, 코르사코브는 8791.36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8287.13루블리, 오히는 9689.01루블리로 집계됐다.

(사할린주 통계국 자료에서)

이 모 저 모

사할린 주민, 러시아 학교 조리사 상위 10위 안에 들다

〈2023 - 우수 학교 급식〉전 러시아 경연 예선전에 리만 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조리사가 출전하여 개인 경기에서 순위 137위 중 6위를 차지했다. 경연은 11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블라디카프카즈에서 열렸다고 주 교육부가 전했다.

경연에 사할린을 대표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 6호 중등학교가 〈시내 학교 우수급식〉 부문에 출전, 〈농촌 학교들의 급식〉 부문에 말로쿠릴스코예 마을의 중학교가 출전했다.

사할린의 학교 조리사들은 사할린의 특산물로 창의적인 요리를 준비한 가운데 채소를 곁들인 절인 생선, 송어로 만든 커틀릿, 해조류 수프, 생선롤, 브루스니키와 해당화 열매로 만든 주스가 있었다. 심사에는 심사위원들과 함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연 참가자들을 평가했다. 모든 경연에 출전한 요리들은 식품안전성 규정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경연 최종 결승대회에서는 20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이 경쟁을 치르게 된다. 결승대회는 11월 14일(화) 모스크바 전 러시아 박람회장 〈러시아〉국제포럼-전시의 전시장 한 곳에서 진행된다.

Жительница Сахалина вошла в топ-10 школьных поваров России

Повар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Ли Ман Хва выступила на отборочном этап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ая школьная столовая — 2023» и в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заняла шестое место из 137-ми. Составление проходило с 10 по 12 ноября во Владикавказе,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конкурсе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в номинации «Лучшая столовая городской школы» представила СОШ № 6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в номинации среди столовых сель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 СОШ села Малокурильского.

Островные повара приготовили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с сахалинским колоритом, среди которых была запеченная рыба с овощами, котлеты из горбуши, суп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рыбный рулет, напитки из брусники и шиповника. Помимо жюри, работы конкурсантов оценивали школьники и родители. Также все блюда прошли проверку на соблюдение норм СанПиН.

В суперфинале конкурса боролись 20 школьных столовых. Он состоялся 14 ноября в Москве на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ок выставки «Россия» на ВДНХ. С а х а л и н е < 군인 > 군 사 - 애 국 교 육 센 터 개 설

사할린 지역 <군인>센터가 코르사코브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에 설립된다. 이에 사할린의 청소년과 성인들은 군사-실용 활동을 배울 수 있으며, 교육기관의 직원들도 자신의 자질향상의 수업을 받게 된다. 군인센터에서는 교육을 담당할 교관들을 초빙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자발적 군-스포츠 훈련체계와 청년애국교육 부활에 대한 주도권은 '러시아 군사예술연맹' 공동위원장에 소속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 세르게이 키리엔코와 극동 지역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이다.

2022년 9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참전용사 연맹' 사할린 지부의 스타니슬라프 칼렌티예브 회장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국방과 안보의 기초를 가르치고, 군사스포츠 훈련과 애국교육을 실시하는 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는 교육기관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 성인을 위한 보충교육이다."라고 말했다.

푸쉬스티 간이비행장의 제반시설 구축은 군사적-실용적 활동의 훈련을 더욱 질적으로 향상된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군인>센터의 학생들이 야외 박물관, 게릴라 마을, 익스트림 경주장, 기술 종목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구역, 스포츠 훈련과 교육을 위한 교실을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간은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3주에서 3개월까지 다양하다. 교수 구성원은 더욱 확장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을 교육할 전문 교관들이다.

Центр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оин» открое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центра «Воин» откроется на базе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Там юные и взрослые сахалинцы смогут обучаться военно-прикладному делу. Кроме того, сотрудник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На работу в центр приглашаются инструкторы,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ициатива возрождения в России системы добровольной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и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молодежи принадлежит председателю «Российского Союза боевых искусств» —первому заместителю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Сергею Кириенко и вице-премьеру — полпреду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Юрию Трутневу. В сентябре 2022 года идею поддерж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Мы буде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д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которых планируем обучать граждан основам обороны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ой подготовк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му воспитанию. Одна из них для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работнико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торая —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детей, молодежи и взрослых»,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ООО «Российский Союз ветеранов Афганистана» Станислав Калентьев.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аэродрома Пушистый позволит вывести подготовку военно-прикладному делу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новый уровень. Воспитанникам центра «Воин»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музей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партизанская деревня, площадки для экстремальных забегов, территория для развития техническ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классы для обучения и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Срок обучения — от трех недель до трех месяцев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ки. 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й состав формируется из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инструктор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готовить жителей по более расширенной программе.

2023<펠메니(만두)와 그 친구들>미식축제,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11월 13일(월)부터 <만두와 그 친구들> 미식축제가 시작됐다고 <2023 만두의 날> 축제 텔레그램 방송이 전했다.

제8회 미식 마라톤 축제에 11개 요식업체들이 참가한다. 주민들과 유즈노사할린스크 방문객들은 12월 3일까지 여러 방식으로 요식업체에서 만두를 맛볼 수 있으며, 3가지 요리가 한 세트로서 가격은 950루블리 정도다.

예를 들면, 몇몇 요식업체들은 토끼고기와 호박을 넣거나 생선살을 넣은 만두, 다양한 것을 섞은 힌칼리아를 맛보길 권하고 있다.

(8면에 계속)

잊지 않은 전통: 백일과 돌

'한국문화와 전통에 관한 모든 것' 계몽기획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10일(금) 사할린 문화센터에서 <백일과 돌: 잊지 않은 전통>이란 주제로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개 강연이 열렸다. 이 계몽기획의 행사에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등 사할린 학생들만 아니라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추진한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동계학교의 알마티 (카



자흐스탄, 모스크바 대학들의 대표, 일반인 1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사할린국립대 어문·역사·동양학의 한국어 교수인 임 엘비라 학장과 한국어 교수인 코르네예와 이나 외국어학과장,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강사 김미경 원어민, 카자흐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대학(알마티) 한 넬리 교수가 한민족이 옛날부터 가족에서 지켜온 전통과 풍습에 대해 발표했다.

코르네예와 교수는 한인이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에서 지키고 있는 전통문화 의례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코르네예와 교수는 동료 임 엘비라, 최 이나 교수와 함께 2015년에 '생애 주기 속 한민족 전통문화'란 모노그래프를 출간해 그 책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백일과 돌잔치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특히 돌잡이에 대한 부분이 참가자들에게 호기심을 일으켰다.

김미경 강사는 러시아어로 인사를 전하고, 한국어로 한국 문화 중에 아이의 장수를 기원하는 백일잔치와 돌잔치에 올라가는 음식을 소개했다. 통역은 직접 임 엘비라 교수가 하였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원어민이 하는 한국말을 익힐 수 있었고, 올바른 통역을 배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

백일, 돌잔치의 의미와 돌잡이에 대해, 돌잔치에 올라간 음식에 대해서는 사할린 한인

들도 자세히 모르는 바다. 돌잔치 상에 기본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은 음식은 수수떡, 백설기, 오색 송편이고, 그리고 무지개떡과 인절미도 올라간다. 떡 외에도 돌잔치상에는 대추와 각종 종류 과일, 그리고 미나리가 올라간다.

카자흐 아블라이한 대학 한 넬리 박사는 이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어떻게 한민족 전통을 지키고 있는지 이야기하였다. 그는 한민족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생애에서 3번 상(돌잔치, 결혼, 회갑)을 받고 3번 상(결혼, 회갑, 장례)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며,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은 이를 지키려고 한다고 했다. 요즘은 한국처럼 전통으로 차리는 것은 전문업체에 의뢰하고 있다고 한다. 한 교수에 따르면 요즘 카자흐스탄에서 친구끼리 한꺼번에 회갑잔치를 하는 것이 유행이라며 친구 5명이 모여 회갑잔치를 치를 때는 손님 1000명 정도 초대할 적도 있다고 했다.

모든 강연을 주의깊게 들었던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퀴즈 질문에 답변하고 기념품을 받을 수 있었다.

행사는 떡과 한국 음료로 차려진 맛있는 다과회로 막을 내렸다. 다과회 상은 한국교민들이 준비했다.

행사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언문역사동양학 대학의 주최 아래, 사할린주한인협회, 사할린주한인청년회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취재: 배순신 본사 기자,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견습기자)

사할린, 탄화수소 가공의 중심이 된다

(1면의 계속)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개발부 제1차관 가드쉬마고메드 구세이노브는 연방 정부와 함께 사할린주 정부는 사할린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른 체계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석유가스 분야만 아니라 수산업 단지, 교통운송, 물류, 관광 분야에서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어 국가지원정책들을 촉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지원 정책으로 우리는 '고르니 워즈두흐'라는 독특한 스키장을 개발하여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알파인 스키 선수들과 스노우보스 선수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번영은 경제지표의 성장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 생산기반의 역량이 좌우된다. 사할린주는 현재 극동 지역에서 석유가스 채취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탄화수소 가공에 따른 추가 산업센터들의 개발을 위한 필요한 자원들과 기술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사할

린 에네르고' 최고 경영자 로만 다슈코브가 지적했다.

'러시아 연방 관광공사 사장인 세르게이 수하노브는 '사할린은 극동 지역의 진주'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과제는 일년 내내 운영하는 '고르니 워즈두흐' 산악스키장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할린 주정부의 도움으로 2,600개의 항목을 갖춘 관광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장소를 찾았다. 그 관광 마을에서 방문객들은 지역의 끝으로 향할 것이다. 이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은 300억 루블리 이상이다."라고 세르게이 수하노브가 말했다.

만남의 참가자들은 동부 수소 클러스터 건설, 쿨릴열도 투자, 생선가공량 확대, 석탄 채취 및 수출, 중화인민공화국의 투자자들의 참가를 포함해 사할린에 의료 클러스터 건설 등의 문제들을 논의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사할린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꿈에도 못잊을 사할린한국교육원>

김 주 환(사할린한국교육원 제8대 원장: 2017.03.01.~2020.02.29.)



여 많은 박수를 받았 습니다.

특별 공연으로는 <에트노스 예술학교>의 러시아 전통예술 공연단과 한국전통무용단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

에는 사할린주 태권도·씨름 대회를 개최하여 사할린주 전역에서 태권도와 씨름을 배우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특히, 씨름은 남·북한이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행사로 함께 치루었다.)

3년간을 반추해 보면 그 기간에는 직항도 있었고, 크루즈선도 코르사르사코프항에 입항하는 등 교류가 활발했었다. 따라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방문단이 교육원과 협업하고, 아니면 단순 방문 등 많은 사람들이 교육원을 방문 했었다.

그중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인제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할린 연수단이다. 교육원과 현지 드림여행사가 추진했던 연수였는데, 원생 60명 인솔 교수 7명이 사할린 장애 복지 시설과 씨네고르스크 양로원 등을 방문하여 러시아의 사회 복지 시스템을 이해하고 한국에도 접목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다짐했고 사할린 장애 복지 기관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연수단 방문에 크게 놀란 연수였다. 이 연수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무렵 아시아나 항공이 사할린 취항을 2019년 7월 6일 중단하기로 발표한 상태에서, 인제대 연수단의 출국을 돕기 위해 한번 연장해 7월 9일 화요일 연수단을 태우고 마지막 비행을 하였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할 무렵 2020년 2월 23일 제9대 이병일 원장이 가족과 함께 사할린에 도착하였다. 나는 업무 인계를 하고 26일 3년간 사랑하며 열정을 갖고 섬겼던 사할린을 떠났다. 떠나며 배운 나왔던 많은분들에게 곧바로 다시 방문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3년의 시간이 지난 23년 3월야야 꿈에도 그리던 사할린 땅을 다시 밟았었다.

이글을 쓰며 3년간 직무를 수행하며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뇌리에 스친다.

교육원이 한인문화센터에서 교육 활동과 문화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해 좋은 결과가 있도록 늘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셨던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님, 사할린에는 부산외대 등 한국 대학에서 매년 5~10명 정도의 교환 학생들이 머물렀다. 이들을 돌보고 살피는 것도 교육원의 한 업무다. 이때 유학생들에게 식사 대접하고, 문화 유적지를 함께 안내도 해주며, 부모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셨던 박용석 선교사님, zhrtk 코프 한인회를 섬기시며 한국 방문단이 오면 푸짐한 식사 대접과 낚시 등 러시아의 레저 활동을 지원해 주셨던 이태준 회장님, 교육원의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던 사할린우리말방송국 김춘자 국장님, 새고려신문사 배순신 사장님, 교육 문화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던 출장소 황명희 소장님, 광기동 소장님, 이선영 행정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교육원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셨다. 모두 고맙습니다.

(끝)

(전호의 계속)
2018년 7월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 동포 학생 초청 한국문화 체험 과정에 사할린 전역에서 한국어 초급 능력을 갖춘 5~9학년 학생 60명과 인솔 교사 7명이 초청되어 국궁 등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롯데월드, 코엑스 아쿠아리움 등에서 한국의 선진 문화를 체험하였다. 이 과정의 하이라이트는 안산, 남양주, 오산 등에 영주 귀국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관광버스로 수원 라마다 호텔로 모셔와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동안 같고 닮은 재능도 보여 드리며 대화하는 상봉의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국땅에서 손주 손녀를 본 기쁨을 이루다 말씀하실 수 없다고 하시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경기도교육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2019년에는 한국어 교육에 좋은 성과를 낸 학생 25명을 선발하여 7월 23일부터 8월 6일까지 2주일 동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언어교육원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 탐방, 삼성전자 이노베이션센터 방문 등 선진 문물 체험교육도 실시하였다.

2018년 12월 10일은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를 소개한다.

<12월 7일 러시아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개설한 사할린한국교육원 개원 2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사할린한국교육원은 25년전인 1993년 12월 10일 유즈노사할린스크 에멜야노바 거리 19-A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1학교에서 개원해, 2006년 12월 29일 현재의 한인문화센터로 이전해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초대 한만희 원장 이래 현재는 제8대 김주환 원장이 근무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국교육원은 18개국에 41개원이 분포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다.

사할린은 일제의 강제 징용에 의해 끌려온 한인들이, 일본 패망 후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남아 현재도 2만 6천 여명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사할린에 한국교육원이 개설되어 잊혀져 가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한인들과 러시아인들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한 결과 5천여명이 수강을 했다.

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강좌 개설 뿐만 아니라, 사할린국립대학교 한국어과, 한국어채택 학교인 동양 김나지아학교, 제2김나지아학교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한국 요리 교실, 한국 전통 예절 교실 등도 운영하며, 한국 전통 문화 보급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관하여 한국에 유학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한편, 한국 유학생들의 현지 적응 안내 및 교육도 시키고 있다.

오늘 기념식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황명희 소장,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관계자들이 참가해 축하해 주었다.

공연 시간에는 교육원 수강생들과 한국어 채택학교, 한글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같고 닮은 한국 전통 예술과 K-POP을 발표하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Из фондов СОХМ

Живопись мунинхва

В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севера Кореи пейзажный жанр остается по-прежнему востребованным. Виды знаменитых гор Кымгансан с мощными водопадами и туманам, фрагменты известных и узнаваемых уголков столицы Пхеньяна – основная тема в творчестве художников.

Наследие классической ко-

рейской живописи периода расцвета (Чосон, XVII – XVIII вв.) органично преломляется в творчестве современных живописцев. Например, яркая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очерка Хон Сон Чоля, мастера лирико-романтического склада, отличает его от других художников. Сознательный уход Сон Чоля от развернутой многоплановости картины позволяет ему в камерном масштабе, подобно старым мастерам, создавать декоративно-лирические композиции. Монохромный уголок в пейзаже «Раннее утро», написанный плотными размытиями, наполнен мягко рассеивающимся ирреальным состоянием предутреннего сна, прерываемым мерным шумом крыльев летящих журавлей. Поэтические строки к картине – существенное и необходимое дополнение к пейзажу, расширяющее и обогащающее смысл изображенного:

После дождя речная долина полна дыханием весны.

Тишину разбивая, слетает стая белых журавлей.

Хоть стар я и болен, радуюсь, как в далеком детстве,

Глядя на мир, похожий на неуловимый акварельный рисунок.

(Перевод Романа Хе)

Хай Ок Дя, гл.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СОХ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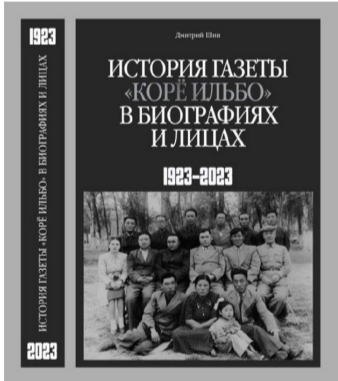


Хон Сон Чоль (1958 г.р.). КНДР
Раннее утро. 1989
Бумага, водяные краски. 87x51,5; 100,5x60
Поступление: из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Мансудэ», 1990
КП-2809 Г/в-655

Вышла книга «Истор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биографиях и лицах 1923–2023»

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газеты хранит в себе судьбы сотен авторов, журналистов и редакторов, корректоров и наборщиц, благодаря труду которых «Коре ильбо» работала в течение 100 лет и доходила до читателя.

Жизни этих людей запечатлены в новом издании, которое выходит в честь 100-летия «Коре ильбо». Автор – Дмитрий Шин. В книге представлены би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о 409 сотрудниках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аботавших в 1923–2023 гг. Исследование для книги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на основе обширного архивного материала, включая личные документы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советской прессы и стран СНГ. Эта книга представляет уникальный взгляд на историю газеты и тех, кто внес вклад в ее развитие за прошедшие сто лет. Новую книгу «История газеты «Корё ильбо» в биографиях и лицах (1923–2023)» скоро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Источник:** <https://t.me/koryoilbo>



ПРИГЛАШАЕМ!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Встречи на Сахалине: о жизни, творчестве, душе» приглашает 20 ноября 2023 г. в 18.30 в конференц-зал гостиницы Гагарин на встречу с режиссером, артистом драмы, ведущим мастером сцены и педагогом Александром Ли.

Тема встречи: «Маленькие радости, или обо всем понемногу»



Александр Ли (1982 г.р.)

Детство и юность прошли в Корсакове.

Окончил театральный колледж СахГУ/актер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Высшие курсы сценаристов и режиссеров (Москва), журфак СахГУ/кафедра журналистики.

Работал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театральном центре им. А.П.Чехова артистом драмы, ведущим мастером сцены. Является педагогом по актёрскому мастерству, сценической речи и ораторскому искусству.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 ведущий методист по театральному жанру отдел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ктивист-эколог.

Не делайте из нас людей, не помнящих родства

Недавно совершенно случайно увидела список имен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которых хранятся в ООО Роз-Агро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сем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Оказалось, что эти списки прислали из ООО Роз-Агро в адрес РООСК,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др. организаций. Но главное не в этом, а в названии мемориала. Наконец-то стало ясно, что мемориал этот для поминания одино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следует из уведомления, которое было получено вместе со списком, помин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называется Мемориальным комплексом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семей и родственников.

До получения сопровождающего письма и списка было не ясно, как же точно называется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оторый стал яблоком раздора между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бизнесменом Хюн Док Су, содержащего данный комплекс. В спис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м Роз-Агро, указано 4916 имен корейцев до 1945 г.р., умерших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онечно же, понятно, что назвать их всех одиночками нельзя. Слишком огромное число.

Сразу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откуда взят этот список «одиноких», есть ли документальное подтверждение, что он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динокие.

А вот что написано в самом уведомлении:

•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размещенные в ООО Роз-Агро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амят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без семей родственников), стали предметом диспутов и разногласий, что создало прецедент для их размещения в мемо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 Список имен, указанных на поминальных табличках,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ен в вышеуказанные

органы и организации (смотреть шапку документа). В случае, если семьи умерших, указанных на табличках, а также родственники умерших имеют возражения или хотят внести корректировки в отношении размещения табличек, то им необходимо предост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их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заполнить бланк возражения и отправить в ООО Роз-Агро до 31.12.2023.

• Документы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в ООО Роз-Агро:

- Заявление возражения

-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дственную связь

- При подаче заявл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хотите ли вы забрать с собой или желаете, чтобы она была подвержена сожжению

- Таблички, размещение которых не будет обжаловано в срок до 31.12.2023, будут считаться легитимным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Вот такое письмо. И опять возникают вопросы: на каком основании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лять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о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Когда организаторы говорили, что этот комплекс для все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юди особо не задумывались, что поминальные таблички с именами их предков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этом комплексе. Но когда официально сообщается, что это 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для одиноких, у которых не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затронуты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ие чувства.

Представьте мои чувства, когда я обнаружила в этом списке имя своего дедушки, родной тети... Они не брошенные, не одинокие! За их могилами ухаживают, ежегодно справляют поминки...

Списки составлен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нем указаны имя, пол умершего, место захоронения, дата рождения и смерти.

Корни, предки, память... Давайте подумаем об этом ради наших детей.

Виктория БЯ

ПЭКИЛЬ и ТОЛЬ – важные праздники в жизни корейцев

10 ноябр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 рамка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Все 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х» состоялась открытая лекция на тему «ПЭКИЛЬ и ТОЛЬ: (не) забытые традиции».

Заведующая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и страноведения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андидат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Инна Корнеева рассказала о некоторых традициях и обрядах жизненного цикла, которые соблюдают корейцы. Особо она остановилась на праздновании 100 дней с момента рождения (ПЭКИЛЬ) и первой годовщины (ТОЛЬ). Эти праздники имею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нтерес ритуал, определяющий судьбу ребенка. Когда ему исполняется годик, перед ним на столике раскладывают определенные предметы, тот, который он вытянет первым, обычно определяет его жизненный путь, будущую профессию и склад характер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важность данных праздников сохраняется с давних времен и корейские семьи чтут и уважают древние традиции.

Благодаря рассказу препода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Ким Ми Гён и директора ИФИИВ СахГУ Эльвиры Лим, слушатели пополнили знания о традиционных столах, устраиваемых на Пэкиль и Толь, о блюдах и предметах, которые обязательно должны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праздничных столах. Лекторы подробно раскрыли название и символ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каждого из обязательных элементов столов для Пэкиль и Толь. Кроме того, каждый из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мог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формлением стола на Толь, подготовленного для лекции.

Завершением лекционной ч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гости из Казахстана Нелли Хан, Ph.D, ассо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офессора кафедры перевода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Казах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мировых языков им. Абылай хана.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профессор Хан раскрыла особенности празд-



нования Пэкиль и Толь у корейцев СНГ, а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а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об истории и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азахстана. Казахстанские корейцы соблюдают традиции, стараются праздновать 100 дней, 1 годик и 60 лет.

Традиционно, по завершению лекционной части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овели викторину на знания о традициях Пэкиль и Толь, победителей которой наградили призами. После проведения викторины,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гласили к накрытому сладкому столу.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лекция собрала не только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о и приглашенных гостей, которыми стал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студенты московского и казахст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ов. Мероприятие, собравшее более 100 гостей, выдалось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и масштабным. Благодаря твор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лек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у слушателей остались уверенные знания и положительные впечатления. Как обе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в рамка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впереди 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новые интерес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 кафедра восточной филологии Института истории филолог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М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а также на Ассоциация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Виктория БЯ)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хеньян обещает укрепл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осквой

КНДР и Россия продолжают укреплять добрососед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 всех сферах, выведя их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Об этом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КНДР Юн Чжон Хо, выступая на приёме по случаю визита в Пхеньян росси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во главе с министром природных ресурсов и экологии Александром Козловым.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Юн Чжон Х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д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одолжают тесные контак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традиционног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тветном выступлении Александр Козлов отметил,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оказывает полную поддержку России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вопросах».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рибыла в Пхеньян для участия в заседании меж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й комиссии по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К представила свои вертолёты на Dubai Airshow-2023

ПК представила два отечественных вертолёта на 18-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виационно-косм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е Dubai Airshow 2023,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с 13 по 17 но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рейском агентстве оборонных закупок, в Дубае представлены многоцелевой вертолёт Surion и лёгкий вооружённый вертолёт LAN, построенные компанией Korea Aerospace Industries. Во время выставки вертолёты проведут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е полёты. Surion находится на вооружен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полиции и морской пехоты. LAN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замены устаревших ударных вертолётов 500MD и AH-1S Cobra, их поставка в вооружённые силы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конец 2024 года.

Роман Хан Г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удостоен премии Медичи

Ром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исательницы Хан Г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удостоен французской премии Медичи 2023 года в области иностра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Об этом было объявлено 9 ноября. Данная премия, присуждаемая с 1958 год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четырёх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емий Франции, наряду с премией Фемина, Гонкуровской премией и премией Рено Досса. Категория зарубежной литературы была добавлена в 1970 году. Хан Ган уже была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Медичи в 2017 году за роман «Уроки греческого». Роман «Я не прощаюсь» выпущен в 2021 году. Он описывает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апреля 1948 года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глазами трёх женщин.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восстали против правления военных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но власти назвали мирное восстан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м бунтом, жестоко подавив его. Тогда погибли от 14 до 30 тысяч мирных жителей. Ранее Хан Ган получила Международную Букеровскую премию за роман «Вегетарианец».

Альбом Чон Гука из BTS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Billboard 200

Сольный альбом Чон Гука из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GOLDEN, вышедший 3 ноября, дебютировал в чарте Billboard 200, заняв в нём второе место. Данный чарт учитывает самые популярные альбомы недели в США, включая продажи физических альбомов и цифровые продажи. Golden - первый альбом Чонгука, попавший в чарт Billboard 200, а сам Чонгук стал шестым участником BTS, вошедшим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 в Billboard 200. Продажи физических альбомов составили 210 тыс. 200 экземпляров, что является вторым показателем после альбома '1989' американской певицы Тейлор Свифт.

Занятость в РК в октябре увеличилась на 346 тысяч человек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собр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ым статистическим управлением, численность занятого населения РК составила в конце октября 28 млн 764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346 тысяч человек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Рост занятости,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месяцы, достигнут в основном за счё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и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й. Так в категории старше 60 лет создано 336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и этом занятость среди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возрасте от 20 до 29 лет сократилась на 82 тысячи, а от 40 до 49 лет – на 69 тысяч человек. Количество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егменте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увеличилось на 104 тысячи, в гостиничном и ресторанном бизнесе – на 52 тысячи, в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м секторе – на 76 тысяч. В секторе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в октябре появилось 11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Это первый прирост с мая 2019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нятость в промышленном производстве сократилась на 77 тысяч, в сфере недвижимости – на 26 тысяч человек. Уровень занятости составил 63,3%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от 15 до 64 лет. Это на 0,6% больше, чем в том же меся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Уровень безработицы составил 2,1% трудоспособного населения, снизившись за год на 0,3%.

(RKI)

Молодежный праздник пянсе прошел в Холмске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люда, а также по каллиграфии,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Ханьль» и игра Тухо вошли в программу праздника.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парта» 11 ноября был наполнен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тать частью II Молодежного фестиваля пянсе смогли холмчане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Наш Холмск».

Шоу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ов «Ханьль»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едшествовало началу фестиваля. Завораживающими и проникновенными ритмами наслаждались более 70 зрителей, среди которых ш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олонтеры.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почетные гости.

- Молодежный праздник пянсе в Холмске стал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 подчеркнул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 в нашем городе он проходит уже во второй раз, и это не случайно. Бытует мнение, что именно наш город считается родиной этого

блюда, потому что именно здесь это блюдо впервые стало доступно широкой публике.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брания МО «Холм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Ольга Шахова. О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асштабного события –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за возможность погрузиться в культуру и традиции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С ответ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едатель Холмской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йцев Александр Тянь и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из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стал самой масштабной частью программы. Школьникам раз-



дали фартуки, шапочки и перчатки, а также, необходимые продукты и посуду. Участники приготовили тесто и начинку, освоили лепку корейск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юда. Далее, изделия отправляли в пароварку. Спустя 20 минут юные кулинары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шедеврами собственн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Молодежный фестиваль пянсе состоял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и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Всех гостей и участников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активисты «Молодой гвардии Единой России», они же раздали участникам памятные сувениры

Цены на билеты на новый паром в Корею оказались доступными

Первый полноценный рейс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намечен на 22 ноября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на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й паром "Восточная жемчужина № 6" по маршруту Сокч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овинция Кангвон) — Владивосток составит 68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одного взрослого пассажира в обе стороны. Это в 1,5-2 раза ниже чем цены на паром Eastern Dream, выполняющий еженедельные рейсы из корейского Тонхэ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Первый тестовый рейс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воскресенье, 12 ноября. "В первый рейс судно отправится без пассажиров, как и в еще несколько тестовых рейсов. А уже 22 ноября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отправится первый полноценный пассажирский рейс в Сокчхо,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стартует в следующий понедельник. Цена для одного взрослого пассажира в обе стороны составит 68 тысяч рублей.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ов дважды в неделю", —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изданию.

Как ранее сообщало ИА PrimaMedia, это новый маршрут между портом Сокчо и российским портом Владивосток, а не прежний маршрут между портом Сокчо и российским портом Зарубино. Паром "Восточная жемчужина № 6" рассчитан на перевозку 700 пассажиров, 150 контейнеров и 350 транспортных средств. Он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С лета 2022 года еженедельные рейсы из корейского Тонхэ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выполняет паром Eastern Dream. Оператор линии — корейская судоходная компания Duwonshipping Co., Ltd, осуществляющая морские перевозки с 2006 года.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же давно нет.

(ИА PrimaMedia, 10 ноября 2023 г.)

ЦТАК: Пхеньян испытал твёрдотопливные двигатели для БРСД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вела успешные наземные испытания недавно разработанных твёрдотопл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большой тяги для нового типа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ы средней дальности (БРСД).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испытания двигателей первой и второй ступеней состоялись 11 и 14 ноября. «В ходе испытаний подтверждены надёжность и стабильность уже зарекомендовавших себя отечеств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производства твёрдотопли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большой тяги»,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KBS World

ПК вернула себе лидерство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судостро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удостроители в октябре вернулись н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объёму заказов на морские суда, обойдя китайских конкурент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исследователя мирового рынка судостроения Clarkson Research Services, общий объём мировых заказов составил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2 млн 490 тыс. компенсированных брутто-тонн (CGT) или 60 судов. Это на 44%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олучили заказ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еми судов общим объёмом 1 млн 540 тыс. CGT, что составляет 62% общемирового объёма.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с большим отрывом Китай - 34 судна объёмом 820 тыс. CGT или 33% общемирового объёма. За период с января по октябрь китайская доля составила 57% заказов, 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 27%.

KBS World

СМИ: КНДР закрыла свои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в пяти стран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НДР приняло решение закрыть свое посольство в Непале. Это уже пятое по счету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которо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крыл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месяца.

О закрытии посольства КНДР в Катманду сообщи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ссылаясь на сообщения непальских изданий. Последние, цитируя советника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Непала,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и, что решение Пхеньяна объясняется "изменением приоритетов" и "углублением финансового кризиса". Сообщается также, что экс-политик КНДР в Непале Чо Ён Ман 6 ноября уже провел прощальную беседу с глав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епала. За ведение дел и отношений, связанных с Непалом,

теперь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посольство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Индии.

Отметим, что за период с октября этого года КНДР, если верить СМИ, решило закры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пят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включая четыре посольства - в Уганде, Анголе, Испании, Непале, а также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в Гонконге.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ъединения Южной Кореи эти решения объяснили тем, что "в связи с усилившими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анкциями против Пхеньян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тало невыгодно содержать ряд своих дип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 на которые были возложены задачи по зарабатыванию валюты".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В Сахалинск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подвели итоги пятилетней программы по достижению показателей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озвели более 20 объ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Это школы,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корпуса для них и детские сады. До конца года построят еще одну школу в селе Головинно.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улучш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ведется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 Модернизац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бъектов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нашим детям получать знания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развиваться творчески, 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IT-технологиях,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в городах и селах области построили 10 школ. Новы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распахнули двери в До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Макарове и Курильске, а также в поселках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Смирных, Шахтерске, в селах Дальнее и Рейдовое.

Современная школа на 300 мест открылась 1 сентября в Ногликах. В заведении оборудовал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учебные классы, библиотеку, спортивный и актовый зал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лок для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а также кабинеты для изучения языков и искусства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 Мы долго ждали этого события. Войти в такую красивую, просторную школу – это счастье. Наконец решилась проблема со второй сменой, теперь ребята учатся в одну.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стало доступнее, – подчеркну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2 Ольга Ратканова.

– Школа большая и комфортная. Есть свой спортивный зал. Актовый зал прекрасный, шикарная сцена, приятно посещать шко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ама комплектация школы очень современная,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ученика Оксана Нестерова.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заработала школа для дет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объект рассчитан на обучение 260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Такж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остроены 4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здания к школам: в гимназиях №3 и №1, школах №6 и №26. Создано 1850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ст.

Школы-детские сады начали свою работу в селах Тунгор и Кировское. Они рассчитаны на 90 и 295 мест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Построены пять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 восемьсот мест в селах Ильинское, Дальнее, Новое, Троицкое и Новотроицкое.

В современном детском саду «Бусинка» в Дальнем предусмотрели бассейн, зал для занятий музыкой, спортзал, кабинет психолога, а также раздевалки с сушильными шкафами для вещей. Каждая группа оснащена мультимедийной системой, в кабинетах логопеда и психолога установлен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дос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творческому и спортивному развитию воспитанников.

– У нас есть различны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Робототехника, детский фитнес, мини-футбол, спортивная борьба, плавание, хореография. Секции ведут профессионалы, члены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РФ. Деткам все секции очень нравятся,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ий детским садом «Бусинка» Людмила Гилевич.

– Мой сын ходит в этот садик с 2020 года. Он попал в билингвальную группу – сейчас он знает много английских слов, поет песни на английском и понимает, что ему говорят. В нашей группе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 дети лепят, рисуют, изучают много нового. Часто приезжают театры, ребят возят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Еще нравится, что мн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екций, тематических праздников. Видно, что с детьм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анимаются,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воспитанника Олеся Львова.

Благодар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на островах, доступность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ля дет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2 месяцев до 8 лет обеспечена на 100 процентов. Фактическ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ля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Минобр гарантирует наличие мест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или школе.

Кроме того, за два года реализаци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Модернизация школьных систем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ден капремонт в 27 школ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155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обновлена мебель, оборудование, спортивный инвентарь, классы оснастили современной техникой для занятий учебной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В учреждениях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здано 26 современных мастерских, еще 16 откроют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2024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ткрыти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по модели Сириус и создание более 3 тысяч мест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бщеразвивающих программ, в Луговом в СОШ №30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здания на 550 мест.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заверша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 110 мест в селах Крабозаводское и Китовое, а также в ЖК «Горизонт» двух детских садов на 240 мест и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школы на 550 мест.

В Долинск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оявится лыжероллерная трасса

Лыжероллерную трассу с асфальтовым покрытием построят на территории Янтарного парка в Долинске.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рамках второго этап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ую реконструкцию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учших проектов созд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Результат работы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муниципалитет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в парке у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пользуется лесной родник. К нему обустроили деревянную тропу, у самого родника оборудовали небольшой домик и настилы.

– В 80-е здесь был парк с танцплощадкой и каруселями, спортплощадками. И для жителей это исторически было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У нас всегда было желание парк возродить. И сейчас это получилось. Все, что пожелали жители, проектировщик учел и люд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проект. Жители сами выбрали и название – Янтарный, поскольку осенью парк как раз в таких красках золотистых, – рассказал мэр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Александр Тугарев.

В парке обустроили волейбольно-теннисную, детскую и воркаут площадки, а также тропы развлечений.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оборудованы резиновым покрытием и искусственным освещением. По маршруту установлены лавочки, качели и беседки.

Также в парке появились павильоны в зоне фудкорта. Зимой заработает прокат лыж. А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лыжероллерной трассы с асфальтовым покрытием для круглогодичных тренировок лыжников.

– Все это удалось сделать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ому проекту,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таких благоустроенных мест уже десятки. Парк в Долинске получился чудесным. Теперь это любимое место жителей – сюда приезжают и пожилые люди, и молодеж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проект будет расширен, здесь появятся новые точки притяжения и парк станет еще популярне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глава региона ознакомился с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территории в границах улиц Пионерской и Октябрьской. На площади более 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ст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скамейки и урны.

Напомним, нацпроект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реализует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проекта – преобразить российские города, поселки, сделать их комфортнее для людей, 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на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страны.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благоустраиваются парки, скверы, набережные. Начиная с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й облик получили около 130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лизится к завершению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ремонта подъездов и дворов

На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почти 3400 подъездов и более 1300 дворов. План по дворам уже сделан, по подъездам – выполняется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Всего до конца декабря обновят 4000 подъездов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и в 2024 году. Стоит задача –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этом подъезды и придом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рил, как с этой работой справился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етил дом №43А на улице Емельянова, где недавно преобразили подъезды. Здесь провели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 оштукатурили стены, покрасили перила, аккуратно убрали провода в кабель-каналы. Инициативные жильцы выбрали эскизы и пригласили художников для росписи стен. Теперь каждый день, выходя из своих квартир, южносахалинцы видят сопки на закате и парящие над ними воздушные шары.

На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сделано почти 1600 подъездов. Объемы нарастили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в прежние годы за год делали около 600 таких объектов.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благодаря субсидиям. Им возмещают половину затрат за косметический ремонт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х.

–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хороший результат. Мы в несколько раз увеличили объемы ремонта. Работы по обновлению подъездов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зимой.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остараемся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все нуждающиеся в этом подъезды и дворы не только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о и в районах. Наши мощности позволяют, чтобы каждый человек на островах жил в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я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всей област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редстоит преобразить 4000 подъездов. Половина из них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к примеру,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Холмском, Долин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ах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более 200 подъездов в каждом.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2024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лжны привести в порядок еще более 2700 таких объект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дрей Ковальчук,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ланируется обновить около 1000 подъездов.

– К мероприятиям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аются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и жители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цы сами проявляют интерес к тому, чтобы поддерживать чистоту и порядок в подъездах, меня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вокруг себя. Для инициативных горожан предусмотрена грантовая поддержка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а управляющие компании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убсидией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Благодаря комплексной работе облик мест общего пользования значительно улучшился,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повышению комфорта проживания граждан,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Ковальчук.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также выполнил рекордные объемы по ремонт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В порядок привели 605 дворов. В 2024 году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охватит еще более 630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тметим, работ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В селе Сокол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ют запустить 3 новые газовые котельные

В селе Сокол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начались работ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3 блочно-моду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работающих на сетевом газе.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ах уже выполнены работы по устройству фундаментов, установлены дымовые трубы и резервуары.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перед нами задачу обеспечить работу котельных на газе, поскольку подключение к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му и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ому топливу обеспечивает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жизни. Новые газовые котельные заменяют устаревшие угольные и позволят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бстановку в районе. Пусконаладочные работы на всех трех объектах в Соколе планируются провести уже в декабре,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оборудование мощностью 5,60 мегаватт доставлено на стройплощадку котельной № 2.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утся работы по его монтажу.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котельная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42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по улицам Луговой, Молодежной, Совхозной, Южной и Парковой.

Еще две блочно-модульных котельных мощностью 1.7 и 7.80 мегаватт поступят в село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Более мощ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установят на котельной № 11. Она будет отапливать 19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реднюю общеобразовательную школу, а также станцию скорой помощи До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ы. Котельная № 8 будет отвечать за поставку тепла в дома по улиц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временны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результат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омпании Газпром.

32 семьи в Холмске переехали в новые квартиры

В Холмске 32 семьи отмечают новоселье. Комфортное жильё в новом восьмиэтажном доме по улице Строительной люди получили бесплатно благодаря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18 двухкомнатных и 14 трехкомнатных квартир возвели «под ключ». В каждой установлены электрическая плита, водонагреватель, вся необходимая сантехника.

Особый плюс для жителей нового дома – наличие горячего водоснабжения. Восьмиэтажка оборудована домофоном, лифтом вместимостью до 13 человек, а также пандусом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орожан.

– Дом построен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илье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м удалось оперативно расселить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ого фон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округе построено и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более 7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В 2023 году мы увеличили объе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ланируем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е менее 12 тысяч «квадратов», – рассказал мэр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В этом году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планируется сдать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еще нескольких многоэтажек. Сейчас на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30-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в селе Чапланово и двух девятиэтажек на 180 квартир по улице Некрасова в Холмске.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начала реализовывать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ереселения еще с 2021 года. В эту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ы аварийные дома, признанные таковыми после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За это время расселено боле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ошлую программу, где жильё было признано аварийным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уд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вместо пяти. В 2019-2020 годах расселено более 4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аварийного фонда,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досрочно завершил программу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ых домов, признанных таковыми до 1 января 2017 года и приступил к реализации новой. Таких же успехов добились еще 1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сего в этом году из аварийных квартир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ереехало более двух тысяч человек, до конца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селить еще около 2,5 тысяч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 어르신 위한 '사할린의 밤'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주최 전국 130여명 1박2일 참석 "초대해 준 대구 청년에 감사"

일제강점기 시절 생면부지 동토의 땅 사할린으로 강제 연행되어 오랜세월 모진 고통을 감내하며 가슴아픈 삶을 살다 영구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을 위로하기 위해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회장 하태균)는 지난 10~11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에서 부산·인천·안산 등 전국 130여명의 사할린동포가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사할린의 밤' 행사를 가졌다.



한 영상을 시청하고 어르신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인 11일 수성문화재단 오페라팀의 식전공연으로 제8회 사할린의 밤 행사의 막이 올랐다. 이어 진행된 본행사에서는 환영사와 축사, 유공회원 표창수여, 감사장 전달순으로 진행됐다. 2부에는 축하공연과 지역별 어르신 노래자랑,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 했다. 청년협의회 회원들은 돌아가실 때 어르신 한분한분께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며 일일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대구에서의 정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랬다.

부산에서 참석한 한 사할린 동

포는 "여전히 슬프고 허전한 날들이 가끔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한국으로 돌아올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를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고국으로 돌아와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낄수 있게 해준 대구 청년들이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하태균 민족통일대구청년협의회 회장은 "사할린 동포께서 겪고 계시는 고국과 고향, 가족, 형제, 이웃에 대한 애환과 슬픔과 그리움이 오늘의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대구 청년들의 사할린 어르신에 대한 진심어린 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했다.

(매일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문경 새재는 왜 고개인가?

진도아리랑을 부르다 보면 뜻밖의 지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문경 새재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지명도 아닌데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왜 문경 새재가 진도아리랑에 나올까요? '문경 새재는 왜 고개냐,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 난다.'라는 가사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산을 오르는 고통으로 표현했지만, 실제로 삶의 굽이굽이에서 참으로 우리는 아픔입니다. 살다보면 이 고개가 가장 높은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고개를 만나게 되니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삶의 고개를 오르며, 눈물과 땀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아리랑 고개를 잘 넘어가기 바랍니다. 문경 새재를 잘 넘어가기 바랍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 교육 전공)

었다는 말도 보입니다. 계림령과 이화령 사이에 있어서 새재라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서 계림도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언뜻 보기에 신라의 다른 이름 계림(鷄林)과 닮았습니다. 계는 닭이면서 '새'라고 해석이 됩니다. 계림과 서라벌을 같은 말로 보는 이유입니다. 새는 또 새롭다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계림은 다시 신라(新羅)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新)이 바로 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라(羅)'는 옛말에서 주로 땅이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즉, 새로운 땅이라는 뜻이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새가 동쪽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바람 중에서 동쪽에서는 부는 바람을 늑새바람이라고 하는데 새는 동쪽을 의미합니다. 경주를 동경(東京)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동쪽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신라 처음가에는 '동경 밝은 달'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림이 경주이고, 동경입니다. 새가 동쪽을 의미하게 된 것은 새가 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말 중에서 새가 해를 의미하는 단어로는 '새벽'이 있습니다. 날이 '새다'라고 할 때의 새도 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새재는 동쪽에 있는 고개라는 해석, 해 뜨는 고개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새재라는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일입니다. 원래 새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는데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원 공부가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중들이 새라는 말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새재는 동쪽에 있는 고개이고, 해가 뜨는 고개였을 겁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풀이 우거진 고개였을 겁니다.(草岾) 경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이에 있는 고개였겠죠. 이 길을 넘어 다니며 힘들어했을 사람에게 새도 쉬어가는 고개라는 말이 참으로 잘 어울렸을 겁니다.(鳥嶺) 그리고 그 고개는 많은 이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의 고개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진도에서 부르는 아리랑에도 아픔의 고개, 슬픔의 고개로 문경 새재가 등장하였을 겁니다.

하나 지금의 새재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예전에는 과거를 보러 가기 위해 오르던 힘든 길이었지만 지금은 가장 걷기 좋은 길이 되어있습니다. 조령 1관문에서 3관문까지의 길은 경사도 완만하고 길도 넓어서 사색하며 걷기 좋은 길입니다. 물론 숲도 너무나 좋습니다. 가을의 단풍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담백한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문경 새재는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함께 걷는 길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청, '제25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작 발표

시·단편소설·체험수기·수필·글짓기(초등/중고등) 등

6개 부문 33편 선정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제25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을 33편 선정해 11월 14일 발표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9월 11일부터 10월 3일까지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수필, 청소년 글짓기(초등 & 중고등)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35개국에서 279명이 707편의 작품을 응모했으며,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성인 부문 대상은 이병석(미국) 씨의 시 '아버지 도날드', 차준희(중국) 씨의 단편소설 '노강(怒江)', 김태진(파나마) 씨의 수필 '오늘도 맛있게'가 선정됐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은 중고등부에서 주희(독일) 학생의 '다름을 낭독하다', 초등부에서 손한

빛(미국) 학생의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가 선정됐다.

한글학교 학생들의 한국어 글쓰기를 장려하기 위한 '한글학교 특별상'은 미국 게인스빌한국학교와 독일 프랑크푸르트한국학교가 수상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문학상은 지난 25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수상자들이 모국 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도 하고 있다"며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활동 장려를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상은 연말에 수상자 거주국 관할공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수상작품집은 12월경 발간·배포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

양산시 거주 사할린 한인 동포 위안행사 개최

숲에서 힐링프로그램 체험 진행

양산시는 상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문화·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힐링프로그램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양산시에 귀국한 사할린 동포는 처음 40가구 80명이 거주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는 사망 및 이주 등으로 36세대 60명이 상북면에 거주하고 있다.대부분 고령으로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이 어렵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할린 동포를 위해 지난 10일 대운산에 위치한 '숲에서'(양방 향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에서 위안행사를 마련했다.이날 행사를 통해 체어 레크레이션·소도구 요가·싱잉볼 명상 등 연령대에 맞는 건강치유 프로그램 참여와 신체치유실·테라피실·힐링정원 등 다양한 치유 공간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양산의 청정자연 속에서 심신의 위안을 얻을 수



▲ /양산시

있도록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고국땅을 밟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에서 아픔의 역사를 겪으신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께서 아름다운 대운산의 자연경관 속 치유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양산시민으로서의 안정감을 느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신문)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2023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стартова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13 ноября стартовал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ельмень и его друзья».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ся в Telegram-канале фестиваля «День пельменя 2023».

Участниками восьмого по счету марафона стали 11 завед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Жители и го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гут отведать в них пельмени в разных вариациях до 3 декабря включительно. Сет включает три блюда. Его стоимость фиксированная — 950 рублей.

Например, некоторые рестораны предложат гостям попробовать пельмени с кроликом и тыквой, рыбные гедза, хинкали с разными начинками.

특별군사작전 참전자 가족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라구쉬카(개구리) 바위로 유람 조성

특별군사작전 구역에서 전몰한 참전병사의 가족들이 웨스트초카 마을 라구쉬카 바위로 유람을 떠났다. 이에 유즈노사할린스크문화-관광센터의 가이드가 사할린 지역의 유명 관광 명소에 대해 행사 참가자들에게 설명주었다고 '조국수호' 지역 재단이 전한 가운데 "이번 등산에 성인들만 참가했다. 등산 상태가 낱서 여건으로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등산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행사 참가자인 마리나 마카로와는 그녀에게서 라구쉬카 바위는 몇 번이고 방문했던 성스러운 곳이지만 전문 가이드와 함께 버스를 대절해 관광명소 유람 조직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말했다.

Экскурсию на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роили для

семей участников СВО

Члены семей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гибших в зоне СВО, посетили с экскурсией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в поселке Восточка. Об известной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рассказала гид культур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филиале фонда «Защитники Отечества». «В этот раз в экскурс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олько взрослые, так как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не обещали приятной прогулки,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именно такой она и получилась», — рассказали в фонде.

Участница мероприятия Марина Макарова отметила, что останец Лягушка для нее является священным местом, которое она посещала уже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о впервые участвует в организованной поездке к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на автобусе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гидом.

극동 지역 고용주들 32%가, 채용에 근로임금 10만 루블리부터 제안

헤헤루(Hh.ru) 러시아 온라인 채용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극동 지역에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근로임금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월평균 근로임금을 제시한 6만 개 이상 업종의 고용주들을 분석했다. 그중 32%의 고용주들이 10만 루블리부터 근로임금을 준비하고 있고, 6%가 20만 루블리 이상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에 극동 지역에서 고용주들이 제안한 월평균 근로임금은 5만9천493 루블리였는데 이는 국내 월평균 임금보다 14% 많다. 마가단주의 회사들은 가장 많은 근로임금을 제시했는데 7만5천833 루블리며, 추코트카 자치공화국은 7만3천301 루블리, 캄차트카 변경은 6만4천875 루블리, 가장 근로임금이 낮은 지역은 부라차야로 4만9천810 루블리고, 사할린주는 5만9천473 루블리였다.

"극동 지역에서 3천6백 개의 업종에서 제시한 근로임금은 20만 루블리다. 이런 근로임금이 제시된 대부분의 업종은

'운송, 물류작업, 창고관리, 대외 경제사업, 채굴산업, 건축, 부동산, 채취, 기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들과 관계가 있으며, 더우기 교육과 숙련 작업에 따른 특수 희귀 전문가들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기술직이나 특수 전문직과 관련이 있다."고 '극동 헤헤루'의 센터장인 크세니야 아베리나가 덧붙였다.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근로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2023년의 시대적 추세 중 하나다.

Зарплату от 10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едложили 32% работода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лужба исследований Hh.ru, платформы онлайн-рекрутинга в Росси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более 60 тысяч вакансий работодателей, размещенных за последний месяц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чтобы выяснить, кому готовы платить самые большие зарплаты.

Так, выяснилось, что 32% работодателей готовы платить от 100 тысяч рублей, 6% — свыше 200 тысяч.

Среднее предложение работодател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октябре составило 59 493 рубля, что на 14% выше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по стране. Самую высокую зарплату предлагают компании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75 833 руб.), ЧАО (73 301 руб.) и Камчатского края (64 875 руб.). Ниже всех предложение в Бурятии (49 810 руб.).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59 473 руб.

«Зарплата 200 000 рублей и выше сейчас указана в 3,6 тысячи актуальных ваканс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Большая часть таких предложений относится к таким отраслям бизнеса, как «Перевозки, логистика, склад, ВЭД», «Добывающая отрасль» 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движимость, эксплуатаци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Чаще всего это вакансии для уз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образованием и опытом работы,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относятся к инженерным и рабочи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 добавляет Ксения Аверина, директор «Hh.ru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Дефицит людей сопровождается бурным ростом предлагаем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 это один из трендов 2023 год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